

“전두환의 분신’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5·18 때 광주에 있었다”

5·18 계엄군의 고백

<2> 특전사 보안대장 김충립

5·18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대령)를 맡고 있던 장세동(82)씨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및 특전사 공수여단 병력 투입 시점보다 1주일가량 앞서 광주에 급파됐고, 항쟁 유혈진압 후 서울로 복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 기사 6면〉

장씨는 전두환(88) 당시 보안사령관과 함께 12·12군사반란을 주도하고 전 전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하는 등 ‘전두환의 분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장씨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독 광주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행적조사는 물론 ‘5·18 사전기획설’을 비롯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을 지낸 김충립(71·당시 소령)씨는 14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장세동이 5·18 일주일 전쯤 광주에 내려갔다가 5·18이 끝나고야 서울로 돌아왔다. 장세동이 5·18(유혈진압)의 핵심인물이다”고 밝혔다.

김 전 보안대장은 “12·12 주역 중 한 명인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이 5·18이 발생하기 전 특전사 작전참모로 발령난 점, 5·18에 앞서 광주에 급파된 점(5·18의 전모를 밝히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전사는 1980년 5월 21일 낮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행하고 항쟁 초기부터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했던 부대로, 공수부대는 이름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정호용(88)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 돌아 진압 등을 준비하고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 김충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정호용 사령관 장세동 작전참모 김충립 보안대장

사무실이 내 방 바로 옆이고 평소 친구처럼 지내오던 터라 뛰 출게 없나 찾다가 서랍에 있던 땅콩 통조림하고 현금 5만원을 찾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보안대장은 5·18과 관련해 졸군 장세동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세동이 잠깐 내려갔다가 온 게 아니라 광주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광주에 있었다. 조만간 5·18을 재조사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장세동의 행적을 집중조사해야 한다”며 “사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노태우, 정호용 이런 사람들은 겁대기였다. 정호용이 되레 장세동의 동

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세동이 광주에 간 날은 5월 9일 또는 10일이었을 거다. 그가 어느 날 가 방을 메고 내 방에 왔기에 ‘어디 가시오’ 하고 물으니, ‘광주에 간다’고 하더라”며 “‘광주는 왜 가시오’ 물으니, ‘그건 비밀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보안대장은 “장세동이 대답을 안 해주니 속으로 ‘이번에는 5·17이 터지니 미리 광주에 가는구나’ 하고 짐작했지. 부마사태 때도 출동했었잖아”라며 “보안사 내부에서는 5월 초부터 ‘5·17비상계엄 확대 후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날 거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떠올렸다.

김충립 “5월 9~10일 광주에 갔다. 이유 문자 비밀이라 말해
완전 진압 후 서울 복귀...장세동씨가 5·18 핵심 인물”

정호용 “광주에서 폭동 일어날 조짐...동향 파악 위해 갔을 것
내게 보고한 것 같아...보안대장이 말했으면 사실이겠지”

공수부대 투입 1주일 앞서 광주로...‘5·18 기획설’ 규명을

향을 살피며 눈치를 봤다. 장세동이 전두환의 분신이자 실제 중의 실세인데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김 전 보안대장의 주장에 대해 과거 정부 차원의 5·18진상조사에 참여한 한 인사는 “장세동 역할론, 장세동 광주 방문설 등을 제보받고 조사에 나섰으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문서나 증인이 충분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세동 광주방문 및 5·18사전기획설과 관련해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세동의 위상이나 무게감에 비해 과거 진상조사, 검찰 수사 및 재판에서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5·18진상조사위가 꾸러지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80년 5월 장세동씨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 전 보안대장은 “장세동이 광주에 간 날은 5월 9일 또는 10일이었을 거다. 그가 어느 날 가 방을 메고 내 방에 왔기에 ‘어디 가시오’ 하고 물으니, ‘광주에 간다’고 하더라”며 “‘광주는 왜 가시오’ 물으니, ‘그건 비밀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보안대장은 “장세동이 대답을 안 해주니 속으로 ‘이번에는 5·17이 터지니 미리 광주에 가는구나’ 하고 짐작했지. 부마사태 때도 출동했었잖아”라며 “보안사 내부에서는 5월 초부터 ‘5·17비상계엄 확대 후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날 거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장세동이 혼자 가지 않고 박종환 특전사 작전과장을 포함해 하사관, 병 등 총 5명이 내려갔다”, “장세동씨

신지애, 아버지와 갤러리 열다 ▶2면

러 월드컵 대표팀 28명 선발 ▶20면

김 전 보안대장은 “장세동이 광주에 간 날은 5월 9일 또는 10일이었을 거다. 그가 어느 날 가 방을 메고 내 방에 왔기에 ‘어디 가시오’ 하고 물으니, ‘광주에 간다’고 하더라”며 “‘광주는 왜 가시오’ 물으니, ‘그건 비밀이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보안대장은 “장세동이 대답을 안 해주니 속으로 ‘이번에는 5·17이 터지니 미리 광주에 가는구나’ 하고 짐작했지. 부마사태 때도 출동했었잖아”라며 “보안사 내부에서는 5월 초부터 ‘5·17비상계엄 확대 후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날 거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떠올렸다.

김 전 보안대장은 “장세동이 대답을 안 해주니 속으로 ‘이번에는 5·17이 터지니 미리 광주에 가는구나’ 하고 짐작했지. 부마사태 때도 출동했었잖아”라며 “보안사 내부에서는 5월 초부터 ‘5·17비상계엄 확대 후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날 거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떠올렸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5·18민주묘지 참배객 줄이어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나흘 앞둔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유영봉안소를 찾은 참배객들이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한 후 영정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송영무 국방 “軍 잘못 적은 5·18 역사 바로잡겠다”

송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었으나, 묘지 입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열려 참배를 취소했다. 서 차관은 5·18 왜곡조작인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 민주묘지 참배 불발

송 장관은 이날 광주 송정역 역사실에서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들과 만나 “군이 유야무야 하나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발간한 책들 가운데 조작된 내용을 담은 것들은 잘못됐다고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5월 3단체 회장단과 면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5·18단체 회장단과 면담에서 “국군의 이름으로 잘못 적은 5·18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 ‘5월 이슈’ 쟁점화될 듯

평화당, 김종배 전 국회의원 광주시장 후보 확정

전두환 비서실 행정관 對 5·18 사형수 대결구도로

민중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김종배 전 국회의원을 확정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11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추천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전 의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15대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조 대표는 이날 선대위에서 “김종배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5·18 시민군 사령관이고 또 전두환 정권에서 그 죄목으로

사형선고도 받으신 인물”이라면서 “이번에 5·18도 다가온다. 우리 민주평화당의 광주시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속 솔리로 이끌어주시길 믿는다”고 기대했다.

평화당이 김 전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할 것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김 전 의원이 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경력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5월 이슈’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것은 호

남에 기반을 둔 우리 평화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보고 광장히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라며 “호남에서 평화당이 중심이 돼 우리 호남의 중진들이 중앙에서 정말로 한국의 정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글거리는 용감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광주를 안고 뛰겠다”면서 “그리고 광주시청에 전두환 정권에 협력했던 자의 사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의당 나경채 전 공동위원장, 민중당 윤민호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크림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